

News

LTV 우대 20%포인트 올렸지만... 9억 아파트 살 때 대출한도 고작 4000만원 증가

머니S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상향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담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

LTV 우대폭이 20%포인트 늘었지만 대출 최대한도가 4억원 이내로 제한돼 있는 만큼 사실상 대출 증가분은 몇천만원에 그쳐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지적

하나금융 계열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취득했다

아시아투데이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4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의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 하지만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제도 등 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심사가 재개

'거래소엔 손사래' 은행권, 가상자산 수탁사업 속속 뛰어든 까닭은

뉴스1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거리를 두는 반면 가상자산 수탁 사업엔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현 법안 관련 리스크가 커 상대적으로 무난한 '수탁 업무'를 공략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커스터디 선문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에 전략적 지분투자, 2월엔 미국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 기업 '비트고',KDAC과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곧 나올 금소법 요약설명서... 당국-은행 '책임' 놓고 시각차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이 지난 3월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후 애타게 기다려온 고객 핵심설명서가 다음달에는 나올 예정 그런데 시중은행과 금융당국의 입장은 상이

시중은행은 투자성향, 약관설명기 한시간 걸려 시간을 단축하면서 법적 면책 효과를 기대하나 금융당국은 설명의 의무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어지면 안 될 것을 강조

삼성생명, 英자산운용 2대주주로...1천억에 세빌스IM 지분 25% 인수

매일경제

삼성생명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영국 종합부동산그룹 세빌스 산하의 부동산 자산운용사 세빌스IM 지분 25%를 6375만파운드(약 1013억원)에 취득하는 안건을 승인

현재 자산운용, 해외투자 이익기여도는 15%에 불과. 25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영해 2030년까지 회사 내 이익기여도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

증권사 신용거래 잔고 '지각변동'...삼성증권 2위로 급등

용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용자 잔고는 총 22조2,347억원으로 작년 3월 말 6조5,745억원 대비 238.2%(15조6,601억원) 증가

기존 신용거래 용자 잔고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부동의 1, 2위였다. 하지만 올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신규 투자자 증가로 2강체제를 무너뜨려

몸집 키우는 중소형 증권사, 성장동력 확보 나선다

뉴데일리경제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이 사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증시 호황에 따른 전 사업 부문 성장세로 자기자본이 지난 1년간 20% 넘게 증가

올해 1분기 기준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국내 증권사 13곳의 자기자본 총액은 12.6조원으로 집계. 작년 동기 10.4조억원 대비 21.51% 증가

증권사도 ESG에 꽃혔다, 관련사업 2조 넘게 투자

중앙일보

국내 10대 증권사는 지난달 말까지 2조2701억원을 ESG 관련 채권 등에 투자했다. 여기엔 증권사가 시중은행 등과 함께 발행한 채권도 포함

삼성증권은 8,099억원(44건)으로 ESG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하나금융투자는 4,894억원(50건), KB증권은 4,729억원(38건)을 각각 투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